

열린세상



정정웅
논설실장

예전엔 대학 졸업식이 있는 날이면 캠퍼스는 물론이고 도시의 중심상가까지 졸업생과 가족·친구들이 몰려들어 축하의 분위기가 넘쳐났다. 학교 입구에서 꽃을 파는 상인들과 화원에도 축하의 꽃다발을 사려는 발걸음이 줄을 잇고 학교 주변 도로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찌감치 차량들로 정체되기 일쑤였다.

예전의 대학 졸업식이 이처럼 화려했던 것은 대학이 지닌 의미 때문이다. 과거 대학은 신분상승의 통로나 다름 없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대학을 보내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 희소성으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도 많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대학 졸

업식이 축하분위기로 넘쳐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학 졸업식은 축하분위기와 작잡함이 교차한다. 오히려 썰렁하다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 지난 한주는 대학들의 졸업식이 몰려 있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한 대학 졸업식 스케치 기사들을 보면 축하와 작잡함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졸업식 특수’를 노렸던 꽃장수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못했다. 취업 못해 졸업식에 불참한 졸업생들은 전화나 문자로 동기들과 이별하는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취업 한파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인 셈이다.

졸업식 풍경조차 바꾼 취업난

청년층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 3.73%이었던 반면 청년 층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새 24% 내외의 높

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심각하다. 대학 졸업식 분위기가 왜 가라앉았는지 이해가 된다.

역대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도했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청년층 일자리 공약을 맨 먼저 제시했다. 하지만 결론은 팍이었다. 이번에도 정부는 청년일자리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경안의 추가 확보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 추경은 안된다며 결사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야당의 대치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만 더욱 무거워진다.

사실 청년 취업난은 그동안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다. 옛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 실태를 보면 충격이 넘어야 할 지경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추락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가보지 않은 초저출산의 길로 들어섰다. 자칫 국가적 대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신생아 규모가 격감한 이유는 만혼, 청년층의 취업난, 여성들의 일·가정 이중 부담, 가임 여성 감소 등 복합적 요인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역시 청년층 취업난이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역대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 개선을 위해 수백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번이 실패했다. 그동안의 대책이 지엽적이었다는 반증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나 삶의 질 개선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돼야

청년 일자리와 출산 대책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더 늦기 전에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청년층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대책이 관건이다. 특히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생들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삶의 질 개선 대책이 우선시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로 나가는 대학 졸업식에서 주인공인 청년들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기쁨을 나누는 졸업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다.

사설

소형어선 안전사각 규정 개선돼야

옛그제 완도 해상에서 통발어선 ‘근룡호’가 전복돼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아 발생한 어선 사고가 안타깝다. 하지만 근룡호 처럼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소형어선들은 관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니 놀란다.

지난달 28일 전복된 7.93t급 어선 근룡호는 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시 16분께 망망대해로 출항한 것을 끝으로 AIS 신호가 소실됐다. 결국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변을 지나던 유조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호만 잡혔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소형 선박들은 관제 화면상에 작은 점으로 표시된다. 행적이 사라져도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근룡호처럼 전복돼도 한참 동안 구조되지 못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사고 우려가 크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AIS 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출항하더라도 대책이 없다니 답답하다.

사실 모든 선박은 위치발신장치 중 한 가지 이상을 설치 작중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항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장이나 신고만 하면 출항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어선의 경우, 조업 위치가 다른 어선에 잡히지 않도록 장치를 꺼놓기까지 한다니 충격이 크다.

규정상 어선은 길이 40m를 넘어야 VTS가 관제되도록 됐다. 하지만 근룡호처럼 길이 14.5m의 소형어선은 관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를 제어할 수 없다지만 안전이나 처벌 등을 강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명이 겨우 아이 한명 낳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명대로 떨어졌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집계됐다. 둘이 결혼해 겨우 아이 한명을 낳는 셈이니 이젠 대한민국의 지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버렸다.

통계청의 ‘2017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5만 명이었다. 이는 2016년의 40여만 명 대비 11.9%나 격감한 수치이다. 출생아 감소 폭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라니 충격적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을 지경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더욱 답답해진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0.3%나 급감했

다.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딱 절반 수준이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가정한 1.07명보다도 낮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상황에서 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로 인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초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그동안 나온 저출산 대책들이 우리 현실을 제대로 살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버리고 현실성 높은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고



장대규

광주 동부경찰서 자산파출소장

최근 금융당국의 감시와 경찰의 예방 홍보와 단속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진화된 수법 등이 다양하게 등장,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

보이스피싱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이에 경찰은 형사, 지역경찰을 총 동원하여 금융기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을 방문,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

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유출된 금융정보는 즉

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발신전화번호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뱅킹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사기범들의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은행에서 시범시행하는 ‘전자금융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거나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3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자연인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자수첩

새학기 ‘어린이 보행사고’ 주의

3월달 새학기 시즌 ‘어린이 보행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새학기철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등·하교 시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 주변을 운항하는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이 절실하다.

스쿨존 주변의 대표적인 교통사고 원인중 하나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동구 운림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초교 2학년생인 이들은 이 사고로 다리와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어 119로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최근 5년 동안 광주 109·전남 106건으로 총 215건, 부상은 광주 112·전남 122건 등 모두 234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명이나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외의 구간에서도 매년 1,000여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통사고의



고광민
사회부 기자

절반 이상이 저학년(1~3학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새학기철인 3~5월 사이에 집중됐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과실로 분석된다. 운전자들이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불미스럽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문에, 스쿨존 주변에서의 운전자들은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신학기철 정부와 자치단체·학교·학부모·경찰 등 모두가 나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예술로 마음 밭 일구기

매향석수 (梅香石壽)

梅香石壽



<작가:정계 양태석 화백>

매화처럼 향기롭고 돌처럼 오래 살라는 축복의 말.

/자료제공 (사)세계미술연맹(이사장 서요한)

유머@세상

◇피카소의 유머
2차대전 이후 피카소의 그림 값이 폭등했다.

한 부유한 부인이 그의 작업실을 방문해서 추상화를 보고 물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20만 달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유머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려면 사람이 고흐에게 물었다.

“돈이 없어서 모델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하나 구했어.”
“누구요?”
“나. 요즘 자화상 그려.”

◇모파상의 유머
모파상은 파리의 경관을 망친다는 이유로 에펠탑 세우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모파상이 매일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모파상에게 에펠탑이 싫다면 서여 기사 식사를 하냐고 물었다.

모파상이 대답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곳이 여기니까요.”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망 알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

1989년 6월 29일 창간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崔永基** 사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 회 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 A X (062)720-1080-82 문 제 부 (062)720-1045 E-mail=jndn@chol.com
논 설 실 (062)720-1032 전 산 팀 (062)720-1033
정 치 부 (062)720-1060-62 사 진 부 (062)720-1040
경 제 부 (062)720-1065-67 광 고 국 (062)720-1017
사 회 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유머@세상

“돈이 없어서 모델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하나 구했어.”
“누구요?”
“나. 요즘 자화상 그려.”

◇피카소의 유머
2차대전 이후 피카소의 그림 값이 폭등했다.
한 부유한 부인이 그의 작업실을 방문해서 추상화를 보고 물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20만 달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유머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려면 사람이 고흐에게 물었다.

◇모파상의 유머
모파상은 파리의 경관을 망친다는 이유로 에펠탑 세우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모파상이 매일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모파상에게 에펠탑이 싫다면 서여 기사 식사를 하냐고 물었다.
모파상이 대답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곳이 여기니까요.”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망 알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